

태극낭자 도전은 계속된다

내일 콜롬비아 상대 FIFA대회 첫 3위 도전

U-20 여자 월드컵

태극낭자들의 질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록 ‘전차군단’ 독일의 폭격에 잠시 위축됐지만 태극낭자들은 콜롬비아를 제물로 한국의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사상 첫 3위 달성을 향한 마지막 도전을 준비한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20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은 8월 1일(한국시간) 오후 7시 독일 빌레펠트에서 콜롬비아와 2010 FIFA U-20 여자 월드컵 3-4위전을 치른다.

태극낭자들은 30일 새벽 끝난 개최국 독일과 4강전에서 체력과 기술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무려 5골을 내주고 1골을 만회하는 힘든 경기를 펼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한국은 후반 들어 독일의 골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골 기회를 노렸고, 마침내 지소연(한양여대)이 수비수 사이를 꿰뚫는 현란한 드리블에 이은 오른발 슈트로 한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꿈에 그리던 결승 진출 문턱에서 좌절했지만 태극낭자들의 위대한 도전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목표는 독일전 패배의 아쉬움을 씻고 콜롬비아를 상대로 화끈한 골 잔치를 통해 한국 남녀 대표팀을 통틀어 역대 FIFA 주관 대회 최고 성적인 3위를 차지하는 것이다.

콜롬비아는 사상 처음으로 U-20 여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준결승까지 올라왔다가 나이지리아에 0-1로 석패했다. 하지만 조별리그에서는 1승1무1패(5골4실)로 겨우 8강에 합류해 2승1무(8골3실)를 기록했던 한국보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조금 밀린다는 평가다.

특정에서도 요렐리 리코와 마리나 에게링이 나란히 2골 1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 지소연(7골)과 이현영(3골), 김나래(1골3도움)를 앞세운 한국보다 폭발



지난 29일 밤 독일 보훔 레비어퍼워 경기장에서 열린 2010 FIFA U-20 여자 월드컵 준결승 한국과 독일의 경기에서 지소연이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력이 떨어진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3~4위전은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긴장감이 떨어져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3위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전지해야 할 때다.

최인철 감독 역시 “선수들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만큼 3-4위 전에서도 큰 힘을 다해 승리하겠다”는 필승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 독일의 골잡이 알렉산드라 포프(9골2도움)와 ‘지메시’ 지소연(7

골)의 마지막 득점왕 경쟁도 3~4위전을 지켜보는 팬들의 관심거리다.

독일의 포프는 한국과 준결승에서 페널티킥골을 합쳐 2골을 뽑아 지소연을 2골 차로 앞서고 있다. 하지만 결승전인 만큼 나이지리아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다득점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지소연은 다소 느슨하게 진행되는 3~4위전의 특성상 많은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여 포프 추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각오뿐이다.

/연합뉴스

타선 부활 KIA “8월 기적 보라”

‘해결사’ 김상현 복귀·이용규 타격 살아나
롯데·LG와 1~3게임차 불과 4강 진입 희망

2010 프로야구가 후반기 개막과 함께 4강 싸움으로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달 초 16연패의 수모를 당하며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디펜딩 챔피언 6위 KIA가 약진을 시작했고, 막강 화력을 뽐내며 승승장구하던 4위 롯데가 주춤하면서다.

여기에 8년 만에 가을 잔치 진출을 노리는 LG가 가세하면서 이른바 ‘엘리트 동맹’의 4강 혈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혼전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들은 현재 1~3게임차에 불과해 3연전에서 연승 또는 연패가 생기면 한 번에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살얼음을 달리고 있다.

16연패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또 5연패를 당하면서 동네북 신세가 됐던 KIA는 ‘해결사’ 김상현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순식간에 전력에 안정됐다.

KIA는 27일~29일 사직구장에서 펼쳐진 롯데와 2연전(28일은 우천 취소)을 모두 이겼다. 첫날 경기에서는 2-3으로 밀리던 8회초 이남복 귀한 김상현의 2점 홈런을 발판 삼아 짜릿한 역전에 성공했다. KIA는 이 경기 전까지 5회까지 뒤지다가

역전승한 경우는 5차례(31패)에 불과할 정도로 뒷심 부족에 시달렸다.

팀 타율 7위(0.259)에 불과한 KIA 타선이지만 상승세를 타자 무섭게 터졌다. 29일 경기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3회 한 이닝에서 1점부터 만루포까지 골고루 쳐 팀 사이클링 홈런이라는 진기록을 벗어내기도 했다.

선발진이 흔들리는 와중에 새 에이스 양현종이 버팀목이 돼 주고 있다. 지난 9일 16연패 사슬을 끊은

양현종은 소속 팀이 최근 거둔 3승(1패) 가운데 두 경기의 승리를 책임졌다.

KIA가 치고 올라오면서 직격탄을 맞은 쪽은 롯데다. 장원준, 조정훈 등 선발진이 부상으로 빠진 속에 에이스 손민환의 복귀도 내달 중순으로 늦어져 마운드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위 군히기에 나서는 듯하던 롯데는 올스타 휴식기 전후로 1승 6패로 부진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욱이 30일부터는 상승세의 5위 LG와 홈 3연전이 이어진다.

LG는 1위 SK와 주중 3연전을 2승1패로 마무리 지으면서 기본 좋게 후반기를 출발했다. /연합뉴스



뉴욕 양키스의 박찬호가 3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필드에서 벌어진 경기에서 팀의 마지막 투수로 나와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의 추신수와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형이 이겼다

박찬호, 추신수와 첫 맞대결서 삼진 잡아

박찬호(37·뉴욕 양키스)가 추신수(28·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사상 첫 투·타 맞대결에서 헛스윙 삼진을 잡아내며 선배의 자존심을 세웠다.

박찬호는 3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계속된 클리블랜드와 방문 경기에서 팀의 마지막 투수로 나와 추신수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두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맞대결은 11-1로 양키스가 앞서며 승부가 기운 9회말 이뤄졌다. 8회말 양키스의 세 번째 투수로 승리를 마무리 지으려 올라온 박찬호는 쉐리 던컨을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내고 연달아 두 타자를 범타로 돌려세운 다음 9회에도 변함없이 마운드에 올랐다. /연합뉴스

아스트루발 카브레라까지 우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다음 추신수가 타석에 섰다. 박찬호는 바깥쪽에 꽂 차는 시속 151km 직구를 던져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잡으며 추신수를 압박했다.

한 차례 볼을 골라낸 추신수는 연달아 들어오는 커브를 파울로 커트해내며 기회를 기다렸다.

박찬호는 볼카운트 2-2에서 6구째 몸쪽으로 150km 직구를 던져 승부를 걸었다. 추신수 역시 힘차게 방망이를 들었지만, 공을 맞추지 못하고 삼진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박찬호와 맞대결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공을 맞추지 못하고 삼진으로 돌아서고 말았다. /연합뉴스

땅끝서 조오련 추모 바다수영대회

오늘부터 이틀간

지난해 고향 해남에서 타계한 ‘수영 영웅’ 조오련씨를 추모하는 바다 수영대회가 열린다.

고(故) 조오련씨와 함께 바다수영을 했던 선수 및 지인들로 구성된 ‘조오련배 땅끝바다 수영대회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재철)’는 고인의 1주기를 맞아 31일부터 이틀간 해남 땅끝소호해변에서 ‘제1회

조오련배 땅끝 바다수영대회’를 개최한다.

해남 출신으로 1970년 방북,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자유형 400m와 1500m에서 2회 연속 2관에 오르며 ‘아시아의 물개’란 애칭을 얻은 고인은 개인적으로 대한해협 횡단 30주년이 되는 올해 다시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훈련하다 지난해 8월 4일 삼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추진위는 고인이 생전 보여줬던 불굴의 도전 정신을 잇고자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또 이 대회를 아시아대회로 키우는 등 본격적인 추모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추모 대회는 3.3km 개인전과 1200m 단체 릴레이 경기, 초등부(4학년 이상) 500m 경기로 나뉘어 열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삼가 故인의 冥福을 빕니다.

故 조 식 남(여/84세)

구/부름 정 열/파리
정 한/김영희

호실 201호
발인 7월 31일
장지 안일묘역

故 박수남 남(여/82세)

구/부름 김치남/김치
사별/동희자
유빈/김정복
재빈/김진자

호실 301호
발인 7월 31일
장지 고충 남양

故 박현일 남(남/88세)

구/부름 박신일/박성숙
신영/박영숙

호실 101호
발인 7월 31일
장지 영락묘역

故 김문식 남(남/88세)

구/부름 김문식/김문식
김문식/김문식

호실 101호
발인 7월 31일
장지 영락묘역

마음까지 편안함 - ☎ 062)227-400

금호 장례식장

넉은주치장 - 정갈한 음식!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조지형·광형·보형·계형·일형 씨 모친상 영명

음 씨 빙모상 발인 : 7월31일(토) 08시
장지 : 순천시 주암면 신영 연락처 : 250-4409

▲김문식·문석 씨 부친상 박득재 씨 빙부상

발인 : 7월31일(토) 08시30분
장지 : 화순군 동백면 신영 연락처 : 250-4412

▲최호열·삼열·공열 씨 모친상

발인 : 7월31일(토) 08시
장지 : 곡성군 옥곡면 신영 연락처 : 250-4405

▲홍석원·문석 씨 모친상 정현채·오현철·빅레

발인 : 8월1일(일) 09시
장지 : 나주시 다도면 신영 연락처 : 250-4407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